

2019 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신약의 정경 안에서의
놀라우신 그리스도

메시지 12

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
왕이시고 신성한 대제사장이신
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

성경 말씀: 히 5:6, 10, 6:20—7:3, 11-12, 21 25, 8:1-2, 10:12, 창 14:18-20

- I. 성경에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왕 같은 제사장 직분과 신성한 제사장 직분이 있다—히 10:12, 5:10, 7:1-2, 25.
- A.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—히 10:12.
 - 1.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—히 7:27, 9:12, 28.
 - 2. 그리스도는 죄들을 위한 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애셨다—히 9:26, 10:10-12.
 - 3.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의 일부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 후에 더해진 것이다—히 1:3, 요 1:29, 롬 8:3.
 - B.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해 넣기 위한 것이다—히 5:10, 7:1-2.
 - 1.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써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며 평안의 왕이시다—사 32:1, 17, 9:6.
 - 2.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아론의 일로 예표되는데 비하여 그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것이다—시 110:1, 4, 히 1:3, 8:2.
 - 3. 왕이신 대제사장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.
 - C.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—히 7:25.
 - 1.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은 신분의 문제인 반면,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것은 조성의 문제, 즉 그분을 신성한 대제사장으로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시는 것의 문제이다—히 1:2, 7:26.
 - 2.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의 구원하는 능력이다. 따라서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임재이며 죽음의 부재(不在)이다—히 7:16.
- II. 시편 110 편 4 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도록 임명되신 것에 대한 선언이다—시 110:4, 히 5:6, 10.
- A.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왕이실 뿐 아니라(시 110:1-2), 또한 대제사장이시다—시 110:1-2, 히 2:17, 4:14, 6:20, 8:1, 9:11.
 - 1. 그리스도의 그분의 승천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사역은 그분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 모두를 포함한다—히 7:1-2, 슥 6:13.
 - 2. 왕으로서 그분은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들을 돌보시는 왕의 지휘봉을 갖고 계신다.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보고 계신다—히 4:14-16, 7:25-26, 9:24, 롬 8:34, 계 1:12-13.

- B.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왕이신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공급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신다—히 7:1-2, 8:1-2, 창 14:18.
1. 그리스도께서 땅에 속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죄를 없애기 위한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셨다—히 9:14, 26.
 2.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실 때, 그분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, 우리가 철저히 구원받도록(히 7:25) 우리의 생명 공급이시며 떡과 잔으로 상징되신(마 26:26-28)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(히 5:6, 10).
- C. 시편 110 편 1 절부터 4 절은 그분의 승천 안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,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추가의 자격들이다.

III. 히브리서는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데, 이 그리스도에 대한 주요 중점은 그분께서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다—히 5:6, 10, 6:20—7:1, 11-12, 8:1.

- A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(히 1:2), 사람의 아들이시고(히 2:6-9), 구원의 창시자이시고(히 2:10), 사도이시고(히 3:1), 참된 여호수아이신 것(히 4:8)은 모두 그분께서 이러한 대제사장,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으시고(히 8:2),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데(히 7:25) 필요한 자격들이다.
- B.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결과 제사장 직분은 레위의 제사장 지파에서(히 7:11) 유다의 왕 지파로(히 7:14), 사람들에게서 독생자이시자 받아들이신(히 1:2, 6) 하나님의 아들에게로(히 7:28) 변경되었다.
1. 구약에서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였고 유다는 왕의 지파였다.
 2.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었는데, 대제사장이며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서 나타난 것처럼, 한 지파 안에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결합되었다—숙 6:13, 히 7:1.
- C. 히브리서 7 장 1 절에서 우리는 왕을 갖고 그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갖는다(히 7:28).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실 뿐 아니라 신성하시다는 것을 보여준다.
1. 그분의 왕의 직분은 의와 평안을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, 그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시다—히 7:2, 8:2.
 2.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그분을 살아 있고 생명이 충만한 대제사장이 되시게 함으로써, 그분은 제사장 직분을 무한히 계속하실 수 있으시다—히 7:24.
- D.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소멸시킬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있는 요소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—히 7:16.
1.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, 신성하고,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,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다—행 2:24, 계 1:18.
 2.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—히 7:25.
- E. 파괴되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구성된 왕이시고 신성한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철저히 구원 받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—히 7:15-17, 24-26, 28.
1.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신다—히 7:25.
 2.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, 우리가 구원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,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—히 9:24, 롬 8:34.

- F.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갖고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도록 생명의 상태인 하늘을 우리의 영 안으로 공급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시다—히 8:2.
- G. 왕이시고 신성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는 현재의 그리스도, 지금 그리스도, 오늘 그리스도, 하늘들의 보좌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이신데,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구원이시고 순간 순간의 공급이시다—히 8:2, 4:14-15, 7:26.
- H.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 반드시 주관적으로 객관적이 되셔야 한다—히 1:3, 13:21.

IV.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신지가 창세기 1 장 18 절부터 20 절에 있는 멜기세덱의 예표 안에 계시된다.

- A. 멜기세덱은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—창 1:18.
- B. 멜기세덱은 ‘아버지도 없고, 어머니도 없고, 족보도 없고,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다’—히 7:3.
 - 1.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분, 곧 무한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표이다—히 7:3.
 - 2.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—요 1:1.
- C.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. ‘멜기세덱’이라는 이름은 ‘의의 왕’을 의미하며, ‘살렘’은 ‘평안’을 의미한다—창 14:18.
 - 1. 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올바르게 하였고, 또 만물 사이도 서로 올바르게 하셨다—사 32:17.
 - 2. 평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가져오시고, 그러한 평안 안에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이루신다—사 9:6.
 - 3. 그분은 왕이시며 또한 제사장도 되신다.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 직분, 곧 왕의 제사장 직분이다—벧전 2:9.
- D.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다. 그가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죄를 없애는 제물이 아니라 ‘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’—창 14:13-18.
 - 1.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양분으로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공급하신다—마 26:26-28.
 - a. 하나님의 의와 평안에 근거하여, 우리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신다.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, 지금은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—히 9:12, 15, 마 26:26-28.
 - b. 주님의 상 집회에서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이신 삼일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—고전 10:16.
 - 2.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부활 생명의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축복을 가지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공급하신다—창 14:13-20.
- E. 공급하는 멜기세덱이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승리하도록 중보기도 했을 것이다.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신성하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패배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를 통해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도록 우리를 위해 감추어진 방식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—롬 8:34, 히 7:25, 계 3:11, 22:7, 12, 20.